

“간절하게 문 두드리면, 누군가 응답할 것이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한도영 씨는 영어 실력이 출중해서 서울아산병원의 사내 영어강사로도 활약 중이다.

서울아산병원 아카데미운영팀의 한도영(32) 주임이 고등학생일 때의 일이다. 경기도 일산 대진고에 다니던 그녀는 2학년이던 2002년을 힘겹게 보냈다. 가뜰이나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데, 유방암이 발병한 어머니(장재연·59) 걱정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어려웠다. 성적이 떨어지는 등 슬럼프를 겪던 그녀는 치유의 방법으로 글쓰기를 택했다. 항암치료를 받던 어머니와 가족의 힘든 상황을 수기로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이 교사들의 눈에 띄어 그녀는 그해 아산상 청소년효행상 후보로 추천됐고, 심사를 거쳐 10명의 수상자 중 한 명이 됐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시상한 아산상 청소년효행상은 수상자가 대학에 진학하면 아산장학생으로 선정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지원했다. 2004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한 그녀 또한 2008년 국제통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할 때까지 아산재단으로부터 학비 도움을 받았다.

“청소년효행상 상금은 200만 원이던 걸로 기억해요. 당시 외할아버지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는데, 상금은 모두 외할아버지 병원비로 드렸어요. 큰 상을 받은 덕분인지 어머니 병도 호전됐고, 저도 다시 공부에 전념하게 됐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아산장학생이 되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서울아산병원 직원이 됐으니 아산재단은 아무래도 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요.”

한도영 주임은 1985년 서울에서 2녀 중 둘째로 태어

났다. 대기업에서 일하던 아버지(한상욱·63)가 독일 지사에 파견근무를 나가게 되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독일에 생활했다. 이때 독일어와 영어를 함께 배웠는데, 그녀가 현지인 못지않은 외국어 실력을 보유한 것은 이 시기의 교육 영향이 크다. 독일어는 중급시험(ZMP)을 통과해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토익 최고점수는 950점이다. 한국외대는 처음에 외국어 특기를 살려 독어과에 합격했는데,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2학년 때 국제통상학과로 전과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서울아산병원 응시

서울아산병원이 첫 직장이 아니다. 대학 졸업 뒤 외국계 은행과 대기업에서 3년여 일했다. 주로 회계팀에 배치 받았는데, 돈을 만지는 부서가 회사 내에서는 힘 있는 부서일지 몰라도 그녀의 적성에는 맞지 않았다. ‘성장기에 덕을 본 일도 많은데 조금은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에 ‘경건한 마음으로’ 서울아산병원 공채 시험을 치르고 2011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현실에 안주하는 성향이 아니다. 꿈을 좇는 개척자처럼 닫힌 문을 끊임없이 두들기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다. 대학시절에는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기 위해 편의점과 쌀국수집 아르바이트부터 독일어 번역, 국제재단 사무보조 등을 경험했다. 록밴드의 여성 보컬로서 홍대 앞의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한 것도 이 시기였다.

취업준비생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닐 때도 항상 새로운 일을 도모했다. 2010년에는 서울시 주최 여성행복도시 시민공모에 응모해 대상을 받았고,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개선 공모전에서도 은상을 수상했다.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면서도 대한의학회 등의 공모전을 계속 노크하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오펝이 근성을 지니려면 체력이 필수라는 생각에 운동도 열심이다. 미혼일 때는 꾸준히 달리를 하면서 하프마라톤을 완주했다. 2013년 증권사에 근무하는 남편(김현도·37)과 결혼하여 딸(혜령·7)이 생긴 뒤에는 서울아산병원 안에 자리한 스포츠센터에서 새벽마다 수영을 하고 있다.

“저 또한 적성에 맞는 길을 찾지 못해 많이 방황했어요.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므로 쓸모없는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난 속에서 직장과 진로를 찾느라 애쓰는 후배들에게 감히 한 말씀 드린다면 무엇이든 일



그녀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큰 축복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사진은 2016년 6월 아산국제의학심포지엄에서 영어 MC를 맡은 모습.

단 경험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젊음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했다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거예요.”

한도영 주임은 현재 서울아산병원에서 직원들에게 리더십과 직무역량강화 등을 교육한다. 전화와 외국인 손님맞이에 필요한 ‘비즈니스 영어’와 간호사들에게 요구되는 ‘실무 영어’ 강의도 그녀의 몫이다. 2년마다 열리는 아산국제의학심포지엄은 6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인데, 기획에서부터 연자 관리까지 그녀가 도맡는다. 바쁜 와중에도 서울아산병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응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올 여름에는 한 달 일정으로 미국의 대형병원에 연수를 다녀올 예정이다.

미국 시인 롱펠로의 ‘오랫동안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면, 분명 안에 있는 누군가가 잠을 깨고 나올 것이다’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그녀는 앞으로도 최고의 병원 관리자가 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이다. ☺